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종화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급성장하고 함께 그 속도와 성취감에 중독된 느낌이 든다. 물론 중독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속도 중독과 성공 집착은 우리 국가에 대단한 경쟁력을 가져다 주며 어머니마찬가지로 원동력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도 무시하지 못한다. 부작용의 증상은 세계 자살률 2위와 낮은 행복지수로 뚜렷하게 진단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부문에서도 고통의 자국은 선명하다.

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엄격한 주입식 방식으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해왔고 시험과 성적을 우선시 하며 인재를 발굴해왔다. 그러나 지식의 전달 방식은 바로 교육에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마다 느끼는 어려운 점이 있다. 질문을 해야 할 때 또는 받았을 때 발언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언 자체를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틀린 말을 할까 우려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상대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이나 자기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탈레바다, 자연 자원이 희박한 우리나라로서는 인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섰다고는 하나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들이 무겁게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어 긴장을 놓을 틈이 없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지식의 노예

초등교육 시절부터 진행돼야 하며 그 연장선상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토론식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

영국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학교등급이 하위 25%권에 못 벗어나자 교사들이 회의록 열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해보자고 결정한다. 아이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해리 포터 소설을 바탕으로 교재를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해리 포터 소설의 캐릭터로 변신해 학교에 등교했고 선생들 또한 책안의 캐릭터로 수업을 운영해 나아갔다.

위 5%권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입학 희망자들이 넘쳐나는 엘리트 학교로 탈바꿈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침 일찍 등교해서 학과목들을 공부하고 방과후 사교육 시스템에서 늦게까지 다시 공부를 하고 귀가한다. 그리고 학부형들은 시험 통과를 최우선시 하는 사교육 시스템에 엄청난 경제적 자원을 투자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기술을 전수받으며 지식을 공식으로 축소한 방법들로 노트를 채운다.

과연 창의력을 외치는 이 시대에 걸맞은 인재들을 이런 시스템에서 배출해 낼 수 있을까? 감성이 풍부하고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리더들을 탄생시켜 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들을 지식의 노예로 감금하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이 지식의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지식의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지난 50년동안 인간의 잠재력을 세계에 진시했고 지금부터 세계 시민들에게 더 큰 잠재력을 보여주며 인력자원의 엘리트 국가로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

한국의 성공과 행복의 열쇠는 바로 교육이다.

<피아니스트·서울대 음대 교수>

기고

희망을 전하는 'Happy고흥 이동 봉사단'



송자섭

한반도 남쪽, 인구 7만3000 여명의 조그마한 시골에서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는 'Happy고흥 이동 봉사단'을 운영하며, 봉사활동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피가 큰 가전제품이나 농기계 고장이 나도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놔두거나, 타지에 사는 자식이 와서 고쳐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렇듯 많은 군민이 여러 가지 생활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등 주민 고충이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보고자 민관이 하나 되어 추진하게 된 것이 'happy 고흥 이동 봉사단' 운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9년도에 '효'와 '봉사'를 접목한 특수시책인 '해피 고흥 이동봉사단'을 발족하기에 이르렀고 2012년도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 중이다.

노인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많아 복지

와 봉사가 더욱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것보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함께 나눌 때 그 나눔의 의미가 더 빛나는 것처럼, 복지 정책도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만 경제력과 함께 이웃들의 사랑과 나눔이 더해져야 진정한 봉사라 할 수 있다.

우리 군민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모여 우리 이웃에게 더 큰 행복과 사랑으로 전달되는 되는 것이 복되고 사랑 아니겠는가.

'happy고흥 이동봉사단'은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해 줌으로써, 군민들은 물론 고향을 떠난 자식들도 부모님을 보살펴주는 정성에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있다.

고흥군의 사례를 들어 다른 지역도 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하이 고흥 해피 고흥'이 될 때까지 'happy 고흥 이동봉사단'은 계속 될 것이다.

고흥군의 'happy이동봉사단' 단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흥부군수>

또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 시설이 취약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려면 버스를 타고 읍내나 면소재지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한 가스 불이나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하여 위험에 노출되거나, 미용실이나 목욕탕을 가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여 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봉사단은 농협 등 5개 유관기관 단체와 13개 직능별 전문가, 공무원 등 총 80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건강 상담, 가전제품 점검 농기계 수리, 시력 측정 및 무료 돋보기 제공, 밥질, 금융 상담, 치과 및 내과 치료, 도매 등 품 싼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의료 칼럼



이상혁

여름방학을 맞아 성형수술을 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쌍꺼풀수술은 성형에서도 가장 보편화된 수술이다 보니 과거에 비해 수술을 받는 연령대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

즐린 눈, 작은 눈

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드는 힘이 많이 약해져버리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쌍꺼풀수술을 한다고 눈이 커지는 건 아니다. 위 눈꺼풀에 선이 하나 더 있으면 시각적 효과에 따라 새로 생긴 선이 눈의 경계인 양 착시현상이 생겨 그만큼 커 보일 뿐이다. 눈의 크기 중 가로의 길이가 짧거나 눈 초리가 올라가 사나워 보이는 눈매의 경우는 앞트임, 뒤트임, 밀트임을 함께 시술하면 일명 '꼬막 눈'의 모양이 되지 않고 눈의 가로 길이가 길어지며 눈매가 부드럽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눈의 가로 길이가 중요하지만

만 눈의 세로길이를 넓히기 위해 눈매교정 수술은 피부와 근육지방을 절제한다. 또한 눈의 뜨는 기능을 보강해 눈이 더 시원하고 커 보이도록 해야 하기에 안검거근이라는 근육의 기능을 보완, 눈동자를 덜 덮게 되고 쌍꺼플 수술을 착용한 것처럼 눈이 뚜렷해 보이도록 만들어 준다.

상담을 하다보면 큰 눈에 또렷해 보이는 눈매의 연예인이나 특장인의 눈처럼 똑같이 만들어 달라며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인마다 다른 눈의 형태와 안검하수 증상여부를 꼼꼼히 살펴 미적으로, 기능적으로도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모든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SM성형외과 이상혁 원장>

대형사고 부르는 화물차 불량 적재 강력 단속해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중에 사고시 엄청난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외제차 옆에서는 달리지 않는다"는 것과 사고시 목숨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물트럭 뒤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가장 흔하게 쓰는 농담이다.

버린다. 정말 속상할 일이다. 이거야 목숨 부지하는 일이니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도로 위의 흉기나 마한가지인 대형 나하물에는 정말 대책이 없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킬로로 달리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눈앞에 대형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화물 트럭이 앞에 있으면 아주 불안해서 아예 한참 떨어져서 가던지, 혹은 아주 빨리 추월해 가던지 한다.

▲지연자·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시설

3년 앞 광주U대회 국비 지원이 관건이다

2015년 7월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일원에서 치러지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장 신축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졸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따라서 정부 지원과 대기업 스폰서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는 U대회 후차 달성을 위해 중장기 재원 마련 방안을 서둘러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U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도무적이다. 먼저, 시설 및 운영에 투입되는 국비 지원과 기업 스폰서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전체 1조 원의 예산 가운데 국비가 30%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70%에 해당하는 7000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한해 세입이 1조 1200억 원에 불과한 광주시로서 '적자대회'를 치른다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U대회 흥행 이벤트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과거 부산아시아대입에서 보듯, 북한 팀 참여를 유도하면 흥행에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 정세 속에 남북의 대학생들이 체육 이벤트를 통해 하나가 되는 장면은 세계미디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충분하다.

2014년 인천아시아대입,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준비한 국제이벤트 속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광주U대회에 대한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봉사, 공간산업·LED 등 지역의 첨단기술과 녹색·생태를 아우르는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마련도 필수다. 앞으로 남은 3년

'적조 피해 확산' 퇴치기술 선진화 시급하다

전남 해역에 적조경보가 확대 발령된 가운데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줄 24만 마리가 폐사하고, 고흥에서도 어류 28만 마리가 폐죽을 당하는 등 적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비로 영양염류가 바다로 대량 유입돼 적조생물이 번성하고 있고, 바닷물의 흐름도 약해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에 유해성 적조가 첫 출현한 1995년 이후 전남 해역에서 폐사한 어패류는 지난해까지 2190만 마리로 피해액은 454억 원에 이른다. 해상가두리 양식장이 많은 전남은 적조가 나타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져 무엇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여수시 화정면 백아리 2개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줄돔 24만 마리가 폐사해 2억 6000만 원의 피해를 냈다. 또 고흥의 육산 2곳, 해상 1곳 등 양식장 3곳에서도 돌돔을 비롯해 28만 마리의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 한 육상 양식장에서 돌돔 8만6000마리가 적조로 폐죽음을 당했다.

적조는 바닷물의 부영양화가 수온 상승에 따라 유독성 플랑크톤을 증가시켜 어패류를 폐죽음시키는 무서운 재난이다. 부영양화는 주로 생활오수와 공장 및 농·축산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일어난다. 현상이라는 점에서 적조야말로 환경오염의 엄포인 셈이다.

적조 대책은 궁극적으로 바다오염을 막는 일이다. 오페수로부터 바다오염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황토 살포에 의존하는 방식도 천적 이용 등 선진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어민들도 밀식양식이나 먹이 과다투여 행위를 자제하는 등 바다오염 방지에 솔선해야 할 것이다.

전남에는 현재 여수, 고흥, 완도, 장흥 등 4개 해역에 적조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더욱이 적조가 계속 확산 추세여서 그 피해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無等鼓

2012 런던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에 2-0으로 완승을 거두며 한국 올림픽 사상 첫 동메달을 획득해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 축구대표팀, 올림픽 축구팀의 승리의 주역은 선수들이지만 그 뒤에는 '형님 리더십'으로 각광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있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형님 리더십'이 된다. 선수들에게 눈인사를 쓰고 소통하고 앞에서 께고, 뒤에서 보듬고, 짜증보다는 눈 한 번 더 맞추고, 등 한 번 더 두드려 주며 스티킹을 한다.

일본과 결전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한국시간), 모든 걸 '자율'에 맡기는 홍명보 감독이 이례적으로 선수들을 모았다. 그리고 유도김재범 이야기를 꺼냈다. "재범이 이야기 알죠. 죽기 살기로 했다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동메달을 땀고 이번엔 죽기로 해서 금메달을 땀습니다. 죽기로 땀니다." 선수들 가슴이 달아올랐고 승리가 완승이었다.

형님 리더십이 크게 부각 된 것은 박주영에 대한 배려다. 병역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자회견을 함께 하며 "주영이가 군대 안가면 내가 대신 가겠다"고 문



형님 리더십

장을 잠재웠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를 끌고 지 믿고 기용하는 믿음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는 감독은 선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실천에 옮겨 선수들로부터 끈끈한 믿음과 신뢰를 얻었다.

죽구민들은 지장(智將), 용장(勇將), 덕장(德將)의 공통분모를 모두 갖춘 것으로 꼽히는 독일의 축구 황제 베켄바워와 비견 될 만하다고 추켜세우고 있다.

은 12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아픔을 함께하며, 대변하고 책임지며, 미러로 나아가 수 있는 '형님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1간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스포츠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스포츠팀 2200-621	광고매입국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스포츠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사건부 2200-693	스포츠팀 2200-571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전산팀 2200-68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